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가장 적절한 웰 다잉은?

요즘 인구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다. '웰 다잉(Well-dying)' 이 바로 그것이다.

과연 죽음에도 아름답고 좋은 죽음이 있다는 것일까. 혹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한다.

때문에 웰 다잉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렴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논의 자체가 기분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랑. 이것은 삶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택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모인 가족들에게 '빛을 더'라는 단어를 남겼다고 한다.

철학자 칸트는 "좋다"라는 말을 남기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떠났다고 한다.

각설하고 고택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웰 다잉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1인 노인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죽음을 가족을 비롯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치루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60대 후반부터는 죽음 전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연장치료 거부 등도 또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즉, 노인 자살시도자 3명중 1명은 본인 질병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노인은 여러모로 상실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社說

반려동물 관리 강화해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에게 주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거나 위험한 맹견을 키울 때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국회에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입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다.

반려견 사고는 개의 본성보다는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크다.

기고

이영주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 지원센터장



제대군인 주간을 기념하며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10월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일반 국민들이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한다.

'제대군인에게 감사의 일지'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는 여섯번째를 맞는 제대군인 주간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지정되었다.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하는 것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계급정년으로 인해 부득이 전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전역 연령은 44.8세이며, 그 중 30~40대가 54.7%를 차지하고 있다.

30~40대가 자녀 학비지출 등 가정의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갑작스런 전역에 따른 개인과 한 가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의 문제만 여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제대군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이는 바로 현역군인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국가를 지키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오랫동안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의 사기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하루속히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 할 때이다.

그들이 군에서도 인정받았듯 사회에서도 필요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문제가 서서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최일선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취업상담, 교육훈련, 기업협력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정유년에도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 가입이 필수적이며, 처음 가입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컨설팅을 위해 개인별 전문컨설턴트를 배정하여 1:1 맞춤형 진로상담, 경력설계,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제대군인에게 직업교육훈련비, 전직지원금 등과 같은 구직활동 촉진 장려금을 지급을 통해 구직활동 중 직면하게될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 등의 채용계획 수집과 각종 잡신청 활동을 통해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채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 서류전형에 합격한 제대군인의 면접에서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컨설턴트가 면접에 동행하는 동행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여 국가안보를 든든히 할 수 있는 버팀목이다.

이런 버팀목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이 사회에 잘 적응해야 현역복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이로 인해 국방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명심하며 이번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통하여 다시 뜻은 제대군인을 위해 전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勞 謙 謹 勅

일할 노 겸손할 겸 삼갈 근

勞 謙 謹 勅

▷ 뜻: 근로하고 겸손하며 삼가고 신칙하면 중용의 도에 이룸.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호센터 (Yaho Center) advertisement for youth activities, featuring illustrations of children and text about art and social participation.